

일간지기사의 성차별 사례 지적

여자는 가정주부...감정적 비난도

일간신문의 여성관련기사가 성차별적이고 고정관념적 성역할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논문이 발표되었다.

계명대 오숙희 교수(여성학)는 종합일간지 6개신문에서 89~90년 중 임의의 한달분 기사를 분석한 내용을 한국여기자클럽이 펴낸 <여기자> 창간호에 실었다.

‘신문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왜곡 보도’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오 교수는 신문의 기사가 ▲성별에 따라 같은 유형의 행동을 두고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고 ▲여성일 경우 인물소개 목적에 관계없이 가정으로부터 접근하며 ▲여성을 성적 대상물이나 지면메우기용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. 또한 각 신문의 성차별적 기사를 가부장적 유형, 공식적 성역할 유형, 여자를

감정적으로 비난하는 표적 유형, 여자를 성적대상물로 즐기는 선정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사례를 들었다.

‘부부 글짓기대회에서 경기상고 국어교사인 신현만 씨 부부가

장원을 차지했다’는 남편 이름이 대표성을 지닌 가부장적 유형으로 지적되었고 ‘고급 여성의류 밀수입해 폭리, 아파트 50채 소유자는 독신 여교수’ 기사는 사회구조상의 문제인 과소비와 부동산 투기를 여성을 부각시켜 비난했다는 것이다.

여 91.1.4